108

◈수장부 다한증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 절제술에 대한 임상적고찰

선기남, 장원기, 김석기, 서연호, 김창곤, 김민호, 구자홍, 조중구, 김공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본태성 다한증은 교감신경기능 항진으로 국소피부에 과도한 발한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다한증의 치료에는 여러 약물요법, 국소요법, 이온치료, 개흉술 등이 시행되어져왔으나 부작용및 후유증, 침습적인 수술 등으로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최근영상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내시경 수술기구가 정교해지면서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이 보다 보편화되었다. 이에 본원에서는 최근 1년 4개월동안 35명의 수장부 다한증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유용성에 대해 치료결과, 합병증및 부작용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방법 : 전북대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7년 4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양측수장부 다한증환자 35명을 대상으로 5mm 또는10mm 기구를 이용한 교감 신경절제 및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22명의 환자에서 수술전후 수장부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결과 : 남자는 18명, 여자는 17명이고 평균연령은 20.6세로, 16세에서 30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였다. 수족부 다한증이 31례로 가장 많았고, 수족부 및 체간은 2례, 수족부 및 액와부 다한증은 1례였다. T2신경절 절제술이 24례, T2및 T3 신경절 절단술이 3례였으며, 8례에 있어서는 교감신경 절단술이 시행되었는데 그부위는 8례 모두 T1과 T2, T2와 T3, T3와 T4 신경절사이에서 동시에 시행되었다. 수술시간은 평균 56.9분이었고, 흉관을 삽관한 경우는 12례 였으며, 수술후 재원기간은 평균 1.46일 이었다. 수술직후 전례에서 증상이 소실 또는 완화되었으며, 수술수기와 관련된 합병증인 호너증후군, 혈흉, 상완신경총 손상등은 없었으며, 흉관을 삽관하지 않은 환자중 4례에서 잔존기흉을 보였고, 이중 3례는 10% 미만의 기흉으로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었으나 1례는 흉강천자를 필요로 하였다. 22례에서 수술후 수장부의 국소체온은 평균 우측은 0.58℃ 좌측은 0.54℃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결론 : 본원에서는 97년 12월부터 흉강경 및 감자. 전기소작기. 가위 등의 기구를 위한 흉강천자를 2곳 에서만 만듦으로써 절제술을 큰 불편 없이 시행하였고,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고, 최근 액 와부와 유두직하부위의 유륜선에서 절개하여 천자 함으로써 미용상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었 다. 결론적으로 수장부 다한증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 절제술은 안전하고, 합병증이 적으며, 재원기간이 매우 짧은 가장 유용한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